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리고 통인이 도장을 받아서 찍었다. ㉠ 그 뚜윽 뚜윽 하는 소리는 저 엄고(嚴鼓) 치는 소리와 같고, 그 찍어 놓은 꼴은 마치 북두성이 세로 놓인 듯이 삼성(參星)이 가로 잘린 듯이 벌여 있다. 뒤를 이어서 호장(戶長)이 증서를 한번 읽어 끝내었다. 부자는 한참 멍청하다가 말했다.

“양반이 겨우 요것뿐이란 말씀이우? 내가 듣기엔 양반 하면 신선이냐 다름없다더니, 정말 이것뿐이라면 너무도 억울하게 곡식만 몰수당한 것이어유. 아무쪼록 좀 더 이롭게 고쳐 주시길유.”

군수는 그제야 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증서를 고쳐 만들기로 했다.

“㉡ 대제 하늘이 백성을 낳으실 제, 그 갈래를 넷으로 나누었다. 이 네 갈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이가 선비이고, 바로 선비를 불러 ‘양반’이라 한다. 이 세상에선 양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들은 제 손으로 농사도 장사도 할 것 없이 옛 글이나 역사를 대략만 알 정도이면 곧 과거를 치러 크게 되면 문과요, 작게 이루더라도 진사는 떼어 놓은 것이다. 문과의 홍패(紅牌)야말로 그 길이가 두 자도 못 되어 보잘것없지만 온갖 물건이 예서 갖추어 나게 되니 이는 곧 돈자루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진사에 오른 선비는 나이 서른에 첫 벼슬을 하더라도 오히려 늦지 않아서 이름 높은 음관(蔭官)이 될 수 있다. 비록 그렇지 못해서 궁한 선비의 몸으로 시골살이를 하더라도 오히려 무단적인 행위를 감행할 수가 있다. ㉢ 이웃집 소를 몰아다가 내 밭을 먼저 갈고 동네 농민을 잡아 내어 내 짐을 먼저 매게 하되 어느 놈이 감히 나를 팔시하라. 갯물을 네 놈의 코에 바르고 상투를 잡아 매며 수염을 뽑더라도 원망조차 못하리라.”

증서가 겨우 반쯤 이룩되었다. 부자는 어이가 없어서,

“아이구, 그만두시유 제발 그만두셔유. 참, 맹랑합니다 그러. 당신네들이 나를 도둑놈이 되라 하시유.”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달아나 버렸다.

(나) 천생만민(天生萬民) 필수지직(必受之職) 직업이 다 다르다. 사(士) 농(農) 공(工) 고(賈) 네 가지에 우리의 배운 직업 배장사가 직업이라. 바다에 배를 타고 상고(商賈)로 가음는데 인당수 용왕님은 인제수(人祭需)를 받는 고로 황주 땅 도화동에 심오세 심청 여자 인물이 일색이요 온몸에 흠이 없고 효행이 출천(出天)키로 중가(重價) 주고 그 몸 사서 목욕계(沐浴財界) 단장시켜 제수로 바치오니 흠향(歆響) 반자 하옵시고 대해 만리 가는 우리 밤이면 석을 잡고 낮이면 뜻을 달아 배도 무쇠배가 되고 닻도 무쇠닻이 되어 억만금 퇴를 내어 춤추고 돌아오게 접미하여 주옵소서. 북을 등등 울리면서 심청아 시급하다 어서 급히 물에 들라. 심청이 거동 보소. 뱃머리에 나서 보니 새파란 물결이며 울울을 바람 소리 풍랑이 대작하여 뱃전을 탕탕 치니 심청이 깜짝 놀라 뒤로 펴 주저앉으며, 애고 아버지 다시는 못 보겠네. 이 물에 빠지면 고기밥이 되겠구나. 무수히 통곡하다가 다시금 일어나서 바람 맞은 사람같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치마폭을 무릅쓰고 앞니를 아드득 물고, 애고 나죽네, 소리고 물에 풍 빠졌다하되 ㉣ 그리하여서야 효녀 죽음 될 수 있으나, 두 손을 합장하고 하느님 전 비는 말이, 도화동

심청이가 맹인 아버 해원(解冤)키로 생목숨이 죽사오니 명천(明天)이 하감(下感)하사 감감한 아버 눈을 불일내(不日內)에 밝게 떠서 세상 보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한 후에 선인들 돌아보며, 평안히 배질하여 억심만 금 퇴를 내어 고향으로 가올 적에 도화동 찾아 들어 우리 부친 눈냈는가 부디 찾아보고 가오.

37. (가)의 ‘군수’와 (나)의 ‘심청’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보기>에서 바르게 찾은 것은?

<보 기>

- ㉠ 인물에 대하여 거리를 둔다.
- ㉡ 인물에 대하여 거리를 두지 않는다.
- ㉢ 상황에 따라 거리를 두기도 하고, 두지 않기도 한다.

	군수	심청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8. (가), (나)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사건 전개에 매개항은?

- ① 품위(品位)
- ② 권력(權力)
- ③ 체면(體面)
- ④ 금전(金錢)
- ⑤ 명예(名譽)

39. ㉠에서 부자가 느낄 수 있는 느낌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장쾌(壯快)하다
- ② 침중(沈重)하다
- ③ 냉혹(冷酷)하다
- ④ 엄숙(嚴肅)하다
- ⑤ 은은(隱隱)하다

40. ㉡과 상반된 관점이 드러나는 것은?

- ① 이 아희 비록 영웅이오나 천생(賤生)이라 무엇에 쓰리오. 원통하다 부인의 고집이여.
- ② 남녀가 유별하니 비록 천인의 딸이라도 제 스스로 남자를 만났을지 못하거늘 하물며 양반의 딸이야 말하여 무엇하리.
- ③ 옛사람이 이르기를 왕후장상(王侯將相)이 씨없다 하였는데, 세상 사람이 모두 부형(父兄)을 부형이라 부르되 나는 홀로 그러지 못하니 어인 인생인가.
- ④ 이제 너희들이 양순한 백성과 충실한 일꾼으로 이렇듯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거늘 벼슬한 이가 길을 트지 않는 것은 천리에 어그러짐이니.
- ⑤ 나는 공경대부(公卿大夫)의 지위를 차지하지 않았으면서, 농민의 곡식을 어찌 앉아서 먹고 공인의 그릇을 어찌 앉아서 쓰고 상인의 재물을 어찌 앉아서 통용한단 말인가. 마땅히 선비의 내실을 구하며 학문에 정진하리라.

41. ㉔에서 이야기 방식이 대화의 형태로 바뀐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독자에게 구체적인 장면을 제시하여 실감나게 하려고
- ② 부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매매를 포기시키려고
- ③ 부자에게 증서의 내용을 의심하게 하려고
- ④ 부자에게 양반의 속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 ⑤ 독자에게 백성의 궁핍상을 알게 하려고

42. ㉔과 같은 목소리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1.2 점]

- ① 향단이가 내달으며 질하고 여짜오되, 대감 대부인님 기체 안녕 하옵시며 서방님 천 리 행차 평안히 오시오니까. 어사또가 대답 하되, 오, 모시고 잘 있더냐. 춘향이 자던 방문 춘향이 갠힌 후에 잠가둔 지 오래구나.
- ② 어사또가 구경하다 건너 두렁 바라보니 갓 쓰고 중치막에 긴 담뱃대 중동 쥐고 삼사 인이 앉았거늘 상민인 줄 짐작하고 그 옆으로 건너가서 혼잣말로 말을 붙여, 농사를 아니 잃고 백성들이 즐겨하니 본관(本官)이 명관(明官)이제.
- ③ 춘향이 하는 말이, 오늘 저녁 님 오시니 나는 아니 죽네. 종을시키고 종을시키고, 어사또 할 말 없어 듣기만 하는구나. 다른 가객 몽중가는 옥중에서 어사 보고 수다를 떠다는데 이 사설 짓는 이는 신행길을 차렸으니 좌상 처분 어떠한지.
- ④ 장독 뒤에 은신하고 동정을 살펴보니 후원에서 사람 소리 은은히 들리거늘 가만히 엿보니 춘향어미 소리로다. 황토로 단을 묻고 정화수 한 동이를 소반 위에 받쳐 놓고 그 앞에 가 꿇었디어 지성으로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 ⑤ 눈 가는 농부 하나 한 쟁기에 두 소 매어 눈을 한참 갈아가다 눈 두렁에 쉬어 앉아 담뱃대를 쑥 잡아 빼 떨어져 헛김 나는 아래통을 아드득 바삭 돌려 씹지의 가루담배 한 줌 내어 맑은 킴 흰 가래침 와락 툇탁 뱉어서 손 위에 도두 놓고.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鄭)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에 뜻이 없는 선비가 살았으니, 북곽 선생이라 했다.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구경(九經)의 뜻을 풀어서 다시 지은 책이 일만 오천 권이었다. 천자가 그의 행의(行義)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이름을 사모했다.

그 고을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고을 몇 리의 땅을 봉하여 ‘동리과부지려(東里寡婦之閭)’라 했다. 이처럼 동리자는 수절을 잘하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녀는 아들 다섯을 두었으니, 그들은 저마다 다른 성(姓)을 지녔다.

(나) 어느 날 ㉠ 밤, 다섯 아들이 서로 말했다.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별이 반짝이는데, ㉡ 밤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 그리도 북곽 선생의 목소리를 닮았을까.”

다섯 형제가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운데 오늘 밤엔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북곽 선생이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를 지어 읊었다.

“병풍에는 원앙새요 반딧불이는 반짝반짝,

가마솔과 세발솔은 무얼 본떠 만들었나.

흥(興)이라.”

(다) 이에 다섯 아들이 서로 수군댔다.

“예법에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고 했으니, 북곽 선생은 어진 이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 들으니, 우리 고을의 성문이 열었는데 여우 굴이 있다고 하더군요.”

“내 들으니,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둔갑하여 사람 시늉을 할 수 있다 하니, 저건 틀림없이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일 게다.”

그러고서 함께 의논했다.

“내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누구라도 그를 좋아한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게 어떻까?”

(라) 이에 다섯 아들이 같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가니 북곽 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킬킬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편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마)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한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이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찌죽고 머리를 원편으로 돌리며 한숨을 쉬고 말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구리도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말했다.

“범님의 덕은 지극하지지요.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업을 취합니다. 범님의 이름은 신룡(神龍)의 짝이 되는지라,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니, 저 같은 하토(下土)의 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자리에 서웁니다.”

범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앞서 내 듣건대, 유(儒)\*란 것은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내가 평소엔 천하의 악명을 모아 망령되게 내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먼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끈이든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다. 범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중략)

(바) 북곽 선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한참 엎드렸다가 일어나 엉거주춤하더니,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했다.

“『맹자』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재계를 한다면 상제(上帝)라도 섬길 수 있다 하였사오니, 이 하토에 살고 있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자리에 서웁니다.”

숨을 죽이고서 가만히 들어 보았다. 오래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실로 황송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보니 동녘이 밝았는데, 범은 벌써 가고 없었다.

마침 ㉣ 아침에 발 갈러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새벽에 ㉤ 들편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

라 물으니, 북곽 선생이 말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심스레 건지 않겠는가.’

하였네그려.”

- 박지원, 『호질』 -

\* 유(儒): 선비.

\* 유(諛): 아침하다.

25.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인물 간의 대립 관계가 드러나 있다.
- ② (나)에 비해 (다)는 서술자의 서술 위주로 사건이 진행된다.
- ③ (다)는 (라)의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④ (라)는 행위에 의해, (마)는 주로 대화에 의해 갈등이 해결된다.
- ⑤ (마)는 (가)와 구조 면에서 호응하여 작품의 완결성을 높여 준다.

2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 ② ㉡: 북곽 선생의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 ③ ㉢: 북곽 선생의 타락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④ ㉣: 북곽 선생의 위선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다.
- ⑤ ㉤: 북곽 선생이 자신을 성찰하는 공간이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에서 다섯 아들은 북곽 선생을 여우로 여기고 있다. 이는 북곽 선생의 위선을 풍자하기 위하여 작가가 마련한 설정으로, 그들이 여우에 대해 하는 말과 행동은 북곽 선생의 성격과 행위를 암시한다.

- ① ‘여우가 사람 시늬를 한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진정한 선비가 아님을 암시한다.
- ② ‘여우의 갓을 얻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부를 이용하여 높은 벼슬을 얻었음을 암시한다.
- ③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그림자를 감출 수 있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농부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행위를 예고한다.
- ④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린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법 앞에서 비위를 맞추려는 행위와 연결된다.
- ⑤ ‘여우를 잡아 죽이지’는 말은 북곽 선생이 봉변을 당할 것임을 시사한다.

28. (라)~(바)에 나타난 북곽 선생의 행위를 표현하는 말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자화자찬(自畫自讚)                      ② 감언이설(甘言利說)
- ③ 임기응변(臨機應變)                    ④ 대경실색(大驚失色)
- ⑤ 전전공공(戰戰兢兢)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남산골 선님들은 그다지 출입하는 일이 없다. 사람이 있지 않든지 방 하나를 따로 차지하고 들어 앉아서, 폐포파립(敝袍破笠)이나마 의관을 정제하고, 대개는 꿇어앉아서, 사서오경을 비롯한 수많은 유교 전적(典籍)을 얼음에 박 밀듯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내리 외는 것이 날마다 그의 과업이다. 이런 친구들은 집안 살림살이와는 아랑곳없다. 가다가 굴뚝에 연기를 내는 것도 안으로서 부인이 전당을 잡히든지 빔을 내든지. 이웃에서 꾸어 오든지 하여 겨우 연명이나 하는 것이다. 그러노라니 쇠털같이 허구헌 날 그 실내의 고심이야 형용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선님의 생각으로는 청렴개결(淸廉介潔)을 생명으로 삼는 선비로서, 재물을 알아서는 안 된다. 어찌 감히 이해를 따지고 가릴 것이냐?

겨울이 오니 땀나무가 있을 리 만무하다. 동지 설상(雪上) 삼척 냉들에다 변변치도 못한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으니, 사뭇 뼈가 저려 올라오고 다리 팔 마디에서 오도독 소리가 나도록 온 몸이 곧아오는 판에, 사지를 웅크릴 대로 웅크리고 뽕뽕 안간힘을 쓰면서 이를 악물다 못해 박박 갈면서 하는 말이 “요놈, 요 패심한 추위란 놈 같으니, 네가 지금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마는, 어디 내년 봄에 두고 보자.”하고 벼르더라는 이야기가 전하여 오지마는, 이것이 옛날 남산골 ‘딸각발이’의 성격을 단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다. 사실로는 족지마는 마음으로는 안 족다는 앙큼한 자존심, 꼬장꼬장한 고지식, ㉠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것불은 안 췌다는 지조(志操), 이 몇 가지가 그들의 생활 신조였다.

<이희승, 딸각발이>

(나) 생원 : 쉬이. (가락과 춤 멈춘다)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아! 이 양반이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소반인지, 꾸레미전에 백반인지, 말뚝이 꼴뚝아, 발 가운데 최뚝아, 오뉴월에 밀뚝아, 잣대뚝에 메뚝아, 부러진 다리 절뚝아, 호도 엇장수 오는데 할애비 찾듯 왜 이리 찾소?

생원 : 네 이놈, ㉡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예,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꽃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냈습니다.

생원 :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그 ㉢ 양반 어찌 듣소.

<중 략>

생원 : 쉬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㉔ 양반이라 이런 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서방 :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 (시조를 읊는다) “……반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㉕ 양반들, 말뚝이 모두 웃는  
다. 그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생원 :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동생 한 귀 지어  
보세.

서방 : 그럼 형님이 운(韻)자를 하나 내십시오.

생원 : 총자, 못잘세.

서방 : 아, 그 운자 벽자로군. (한참 끄덕거리다가) 형님, 한 마  
디 들어 보십시오. “꽃세기 앞총은 형꼴총하니 나막신  
뒤축에 거떨못이라.”

말뚝이 : 샌님, 저도 한 수 지을 터이니 운자로 하나 불러 주  
시오.

<봉산탈춤 대본>

47. ㉑~㉕ 중 그 쓰임이 <보기>의 밑줄 친 ‘양반’과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여보, 미안해 청이오마는, 나 저 — 기본관 옆에 앉은 기생  
불러 권주가 한 마디 시켜주!”

“이 양반아! 그러면 말로 할 것이지, 남의 옆구리를 그렇게  
찌르던 말이오?”

- ① ㉑                      ② ㉒                      ③ ㉓  
④ ㉔                      ⑤ ㉕

4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앞 문단에서는 간접적인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② 뒷문단은 앞 문단의 예화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③ 부분적으로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드러난다.  
④ 전체적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⑤ 뒷문단은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 대상의 한 면모를 생생하게 그  
려내고 있다.

49. (나)를 읽고 감상하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철수 : 이 작품은 대화로 이루어졌으므로 극적 특성에 주목해서  
읽어 보려고 해.  
② 창호 : 나는 대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작품이 어떻게 연희되었  
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해.  
③ 연식 : 탈춤에서는 관객도 중요하다는데 공연장에 직접 가서 관  
객의 성향을 알아보려고 해.  
④ 순이 : 나는 인물들의 성격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대사를 꼼꼼히 검토해 보고 싶어.  
⑤ 영희 : 나는 양반들과 말뚝이의 대사를 분석해서 인물들의 관계  
를 밝혀 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봐.

50. (가)의 ‘양반’이 (나)의 ‘양반들’의 행동을 비판한다면, 그 내용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호사한 사치를 탐하고 있다는 점  
② 신분을 망각하여 체통을 잃고 있다는 점  
③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잃고 있다는 점  
④ 풍류가 지나쳐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다는 점  
⑤ 아랫사람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

51. (나) ㉔에서 말을 엮어 나가는 방식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여보, 아주뽀뽀하고 도마뽀뽀하고 세상이 다 귀찮아요. 언제 전곡을  
갖다 뽀뽀했나. 아나 밥, 아나 돈, 아나 쌀.  
② 애야! 밤낮 주야로 오매불망, 올망졸망하고 기다리던 네 서방인  
지 남방인지 이몽룡씨 영락없이 비렁거지 신세되어 와버렸다.  
③ 이옛사나 이여도사나 이옛사나 이여도사나 우리 배는 잘도 간  
다 솔솔 가는 건 솔남의 배여 잘잘 가는 것은 잡남의 배여 어서  
가자 어서 어서.  
④ 애, 누가 찾아왔나 보다. 그 누구냐? 대가리꼴 하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는 거야. 친구라고 찾아온다는 것이 왜 모두 그 따  
위뿐이냐?  
⑤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 징역 살다 나와서 폐병  
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 정답: 47. ③ 48. ② 49. ③ 50. ② 51. ④

◆ 17년 9월 고2 28~32번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국 문학 작품들 사이에 면면히 흐르는 공통적인 특질을 ‘한국 문학의 전통’이라고 한다. 한국 문학에는 정(情)과 한(恨)의 정서를 담아낸 작품들이 많다. 그중 한은 인간의 감정이 억눌려 응어리가 매듭처럼 맺힌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한은 수난이 잦은 역사의 비운이나 사회적 억눌림 그리고 어긋난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하지만 한국 문학 작품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한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만을 그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풀이의 모습도 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학은 ‘한의 문학’이자 ‘풀이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김춘택의 「별사미인곡」은 평생 벼슬을 하지 못했던 그가 [A] 당쟁에 휘말려 유배를 갔을 때 지은 가사로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작품이다. 유배 가사를 비롯한 사대부들의 시가 작품 중에는 임금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을 때의 슬픔과 억울함 등을 담아낸 작품들이 있는데, 이때 임금을 이별한 임으로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대개 이런 작품들은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으로 한을 극복한다.

「봉산탈춤」은 황해도 봉산(鳳山) 지방에 전승되어 오던 가면극으로 재담을 통해 봉건적인 가족 제도와 양반의 무능과 허위, 부조리 등을 폭로하고 비판한다. 이러한 탈춤은 서민들을 억압하는 사회를 풍자하고, 양반을 비하하는 욕설, 행동 등을 거침없이 표현하여 서민들의 금지된 욕망을 드러낸다. 또한 익살스러운 말과 행동을 통해 대상을 조롱하고 희화화하여 서민들이 겪었던 갈등과 고통을 웃음으로 해소한다.

(나)

이보소 저 각시님 설운 말쑤 그만 하오  
말쑤를 들어하니 설운 줄을 다 모르겠네  
인연인들 한가지며 이별인들 같을손가  
광한전(廣寒殿)\* 백옥경(白玉京)\*의 님을 띄서 즐기더니  
이별을 하였거니 재양인들 없을손가  
해 다 저문 날에 가는 줄 설워 마소

어떻다 이내 몸이 견줄 데 전혀 없네  
광한전 어디메오 백옥경 내 알던가  
원앙침(鴛鴦枕) 비취금(翡翠衾)에 띄셔본 적 전혀 없네  
내 얼굴 이 거동이 무얼로 님 사랑할고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歌舞)야 더 이를가  
엇언지 님 향한 한 조각 이 마음을  
하늘이 삼기시고 성현이 가르치서  
정확(鼎鑊)\*이 앞에 있고 부월(斧鉞)\*이 뒤에 있어  
일백 번 죽고 죽어 뼈가 갈리 된 후라도  
님 향한 이 마음이 변할손가  
나도 일을 가져 남의 없는 것만 얻어  
㉠ 부용화 옷을 짓고 목란으로 꽃신 삼아  
하늘께 맹세하여 님 섬기라 원이려니  
조물 시기한가 귀신이 훼방 놓았는가  
(중략)

님을 띄서 그러한 각시님 같았던들  
설움이 이러하며 생각인들 이러할가  
차생이 이렇거든 후생을 어이 알고  
차라리 쇠어져 구름이나 되어 이서  
상광 오색(祥光五色)이 님 계신 데 덮였으면  
그도 마다하면 바람이나 되어 이서  
한여름 청음(淸陰)\*의 님 계신 데 불고지고

- 김춘택, 「별사미인곡(別思美人曲)」 -

\* 광한전: 달에 있다는 전설의 궁전. / \* 백옥경: 옥황상제가 사는 서울.

\* 정확: 죄인을 삶아 죽이는 가마. / \* 부월: 도끼.

\* 청음: 시원한 그늘.

(다)

생 원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예에.

생 원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예에. 양반을 찾으려고 잔밥 국 말어 일조식(日朝食)\* 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 노새 원님을 끌어들다가 등에 술질을 활활 하여 말뚝이 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메주 밭듯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툼툼이, 모래 째뼌이, 참나무 곁곁이 다 찾아다녀도 ㉢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중략)

생 원 이놈, 말뚝아.

말뚝이 예에.

생 원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 초빛 같고, 울퉁죽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랩이 비호(飛虎) 같은데, 샌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 원 오오, 그리하여라. 옛다. 여기 ㉤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였소.

**생원**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원**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샌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뭣하오? ㉡ 돈이나 몇백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긋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작자 미상, 「봉산탈춤」 -

\* 일조식: 아침 일찍 식사함. / \* 베틀: 프랑스와 독일.  
 \* 무량대각: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셸.

28.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은 한국 문학 작품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 ② 역사의 비운,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감정이 응어리져 맺힌 것을 한이라 할 수 있다.
- ③ 탈춤은 현실의 억눌림을 웃음을 통해 해소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풀이의 문학으로 볼 수 있다.
- ④ 사대부들의 시가 작품들은 지배층의 부조리를 비판하기 위해 임금을 이별한 임으로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유배 가사는 임금과의 어긋난 관계로 인한 슬픔과 억울함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한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29. [A]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다고 할 때, <보기>를 활용하여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공통점
  - 임금을 천상계에 계신 임으로 그림. .... ㉠
  - 임금을 모셨던 작가 자신을 임과 이별한 여인으로 그림. .... ㉡
  - 죽어서도 임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냄. .... ㉢
- 「사미인곡」의 특징
  - 계절에 따라 임에 대한 그리움을 읊음. .... ㉣
- 「속미인곡」의 특징
  - 두 여인이 이야기하는 형식을 통해 임에 대한 마음을 표현함. .... ㉤

- ① '광한전 백옥경'을 보니 ㉠과 같이 임이 계신 곳을 천상계로 설정하고 있군.
- ② '피서본 적 전혀 없네'를 보니 ㉡과 달리 벼슬을 하지 못했던 작가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군.
- ③ '구름', '바람'을 보니 ㉢과 같이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목란', '한여름 청음'을 보니 ㉣과 같이 계절적 소재를 통해 임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군.
- ⑤ '이보소 저 각시님'을 보니 ㉤과 같이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군.

30.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연쇄법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긴밀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적 대상의 변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31. [B]를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노 생원님'과 발음이 유사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양반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② ㉡: 양반을 얹잡아 보는 말을 사용하여 양반을 비하하고 있다.
- ③ ㉢: '취발이'를 익살스럽게 묘사하여 서민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④ ㉣: 양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⑤ ㉤: 돈을 받고 죄를 눈감아 주던 당시의 모습을 드러내어 부패한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32.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화자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고, ㉣는 '말뚝이'가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② ㉡는 화자의 절망적 현실을 나타내는 소재이고, ㉣는 '말뚝이'의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③ ㉡는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는 소재이고, ㉣는 '말뚝이'가 반성적 성찰을 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④ ㉡는 화자가 상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는 '말뚝이'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소재이다.
- ⑤ ㉡는 화자와 임의 약속을 상징하는 소재이고, ㉣는 '말뚝이'가 위임 받은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찍이 윤 직원 영감은 그의 소싯적에, 자기 부친 윤용구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광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 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고요.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겹하여 위대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 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고요. 그런데…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 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년방 고씨만 빼놓고, 서울 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위 아래 윤 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너 경손 애비, 부디 청신채리라……!”

윤 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테라 점잖게 경손 애비지요.

“……정신을 채리야 될 것이 너가 알만하여두 네 아우 종학이만 못하여! 종학이는 그 놈이 재주두 있고 착실하여서, 너치를 허랑허지두 않고 그럴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머닌 대학교를 졸업허잖나?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허구나와서, 삼년이나 다직\* 사 년만 찌들어 나머닌 그놈은 지가 목적인,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목적헌 경부가 되야 갖구서, 경찰서장이 된담 말이다! 응? 알겠어.”

“네.”

“그러닝개루 너두 정신을 바짝 채리 갖구서, 어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않겠냐……? 아, 동생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디, 형놈은 게우 군서기를 댕기구 있담! 남 부끄러서 어쩔 티여? 응……? 아 글씨, 군수 되구 경찰서장 되구 허머닌, 느덜 좋구 느덜 호강이지 머, 그 호강 날 주나?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소리 허던 것두 다 느덜 위하여서 그러지, 나는 파리 족통만치 두 상관없어! 알아듣나?”

“네.”

마침 이 때, 마당에서 험험, 점잖은 발은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 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큰덕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뜨겼구나?”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립니다.

“……뭣하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돌려 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구요!”

“으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꿁- 짙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선 온식구가 제각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

“종학,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이러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테지요!”

“사상 관계라니?”

“그 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으응?”

— (중 략) —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짖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향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야?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닌 다 지내가고오……. 자 부아라, 거리 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히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으응……?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외지가 멍멍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망쳐 놀 부랑당패에 참섭\*을 헌단 말이여, 으응?”

— 채만식의 「태평천하(太平天下)」에서

\*다직 : 기껏  
\*영각 : 황소가 길게 뿜아 우는 소리  
\*참섭 : 남의 일에 참견하여 간섭하는 것

35. 윗글에서 '전보'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품의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 ② 주인공의 운명을 암시해 준다.
- ③ 서술 시점이 바뀌는 장치로 작용한다.
- ④ 갈등 구조가 급전(急轉)하는 계기가 된다.
- ⑤ 두 사건을 연결하여 긴장감을 유지시킨다.

36. '윤 직원'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 ① 적대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사건의 전개에 따라 태도가 변하고 있다.
- ③ 일관되게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④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판적이다.
- ⑤ 대체로 냉정한 편이지만 때로는 동정하기도 한다.

37. <보기>와 같은 노래의 시적 화자는 '윤 직원'의 어떤 점을 비판하겠는가? [2점]

— <보 기> —

무산자 누구냐 탄식마라.  
 부귀와 빈천은 돌고 돈다.  
 감발을 하고서 주먹을 쥐고  
 용감하게도 넘어간다.  
 발 잃고 집 잃은 동무들아  
 어디로 가야만 좋을까 보나.  
 피나리 붓짐을 잃어지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일제 강점기의 민요 「신아리랑」에서

- ① 왜곡된 현실관
- ② 비타협적인 태도
- ③ 소극적인 인생관
- ④ 빛나간 자식 사랑
- ⑤ 체신머리 없는 행동

38. <보기>는 윗글에 대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보 기> —

소설 작품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즐거움, 형상화된 세계에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자기 자신을 깨닫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채만식의 「태평천하」의 경우에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접근해 가면서 이 두 가지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다.

우선 당대의 현실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이 작품을 읽기 전에는 일제 강점기를 살아간 사람들은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고,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열망하고 있었다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실상이 그렇지만은 않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시류에 영합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윤직원 영감 같은 인물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이 작품은 실감나게 전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일제에 대항한 인물들은 무적이거나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이 작품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몇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깨달음은 이런 것들이다.

---



---



---



---



---

- ① 윤 직원의 헛된 욕망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았다.
- ② 지금의 내 성격으로 보아 내가 당대에 태어났다면 종학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 ③ 종학같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일제에 맞서 대항한 인물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④ 윤 직원의 소위 '태평천하론'을 접하면서 역사 의식이란 피상적인 이해만으로는 형성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 ⑤ 나는 과연 윤 직원이라는 인물과는 달리 나 자신의 이익이나 사회의 이익을 더 중시하고 있는가 반문해 보았다.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바다이 얼어붙고 먼산에 눈이 ㉠치고 그 해는 이른 겨울 부터 몹시 추웠다. 그동안 숙부님은 몇 번이나 집에 다녀가시고 관상소 출입도 더러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황 진사의 얼굴은 그 뒤로 보이지 않았다. 다만, 삼촌을 통해서 그의 시골이 충청도 어디란 것과, 그의 문벌이 놀라운 양반이란 것과, 그의 조상에는 정승 판서 따위가 많이 났다는 것과, 그 자신도 현재 진사 구실을 한다는 것과, 그의 머릿속은 자기 가벌에 대한 자 존심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우스운 것은 그가 곧장 진사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처음 관상소에서 어느 장난꾼이 농담 삼아 그에게 서전과 춘추를 외게 하여 급제를 주고 진사라 부르기 시작한 것인데, 그 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반조롱으로 '황 진사', '황 진사' 부르게 되니, 그러나 '황 진사' 자신은 조금도 어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싸하게 여겨, 이즘 와서는 아주 뽐내고 진사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몹시 추운 날이었다. 아궁에 불을 넣고 방구석에 숯불을 피우고 나는 온종일 책상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낮이 ㉡짐짓했을 때다. 밖에서

"일 오너라—"

하는 소리가 마치 ㉢'사람 살리우' 하는 소리같이 바람결에 싸여 들어왔다. 내가 보니 황 진사가 연방 손으로 콧물을 닦고 서 있는 것이다. 나는 ㉣'대체 얼어 죽지나 않았나' 하고 궁금해하던 차라,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것이 진정 반가웠다.

나는 곧 그를 나의 방에 안내한 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한즉,

"거야 친구 집에서 지냈지요, 뭐, 호호……"

하며, 재미난 듯이 웃었다.

"아 참, 완장 선생은 여태 안 왔시우?"

"수차 다녀가셨지요."

"아, 그렇 거루 난 여태 한 번도 못 뵈었으니 이거 죄송해서, 호호……"

그는 숯불을 안고 앉아 또 히히거리고 웃었다.

흰떡을 사다 숯불에 구워서 그에게 대접을 하고, 나는 아까 하다 둔 일을 마저 해치울 양으로 잠깐 책상에 앉아 있으려니까, 그는 언 것, 구운 것도 가리지 않고 한참 부지런히 집어먹더니, 그동안 흥이 났는지 아주 목청을 뽐아서,

"관관저구(關關雎鳩)는 재하지주(在河之洲)로다, 요조숙녀(窈窕淑女)는 군자호구(君子好逑)로다."

하는 대문을 외곤 하였다.

나는 그동안 책상에 앉아 있느라고 모른 체하고 있으니까,

"아, 성인께서도 실수가 있단 말야!"

그는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아, 공자님께서 시전에 음군을 두셨거던!"

그는 무슨 큰 문제나 발견한 듯이 나 있는 쪽을 옆눈으로 흘려보며 마구 기를 뽐아 이렇게 외쳤다.

그래도 내가 모른 체하고 있으려니까 그는 화로 곁에서 일어서더니, 두루마기 자락을 뒤로 젖히고 저고리 싹을 위로 쳐들고 손을 넣어 무엇을 꺼내는 시늉을 하였다. 나는 속으로 웃의

이를 잡아내어 숯불에 넣으려는 겐가 하고 있는데, 그는 또 한번 나 있는 쪽을 흘려보고 나서 배를 두르고 있던 때묻은 전대 하나를 꺼내었다. 전대 속에서는 네 귀가 다 이지러지고 종이 빛까지 우중충하게 ㉤'목은 모필 사책 한 권과, 백지로 싸서 노끈으로 친친 감아 맨 솔잎 한 줌과, 휴지 조각 몇 장이 나왔다.

"거, 무슨 책이유?"

내가 이렇게 물은즉,

"아, 주역책이지 그라."

하고 된소리를 질렀다. 과연 그 ㉥'이지러진 네 귀마다 넓적넓적한 패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역책임에 틀림은 없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주역책은 왜 하필 전대에 넣어서 두르고 다니느냐고 물은즉,

"아, 공자님께서도 역은 삼천독을 하셨는데 그라."

하고, 된소리를 질러 놓고 나서, 다시 조용히 음성을 낮추어,

"아, 여복해 지략의 조종이오? 조화의 근본 아니오?"

하였다.

나는 처음 관상소에서 그를 보았을 때부터 "하도 지모가 나지 않아 육효를 뽐아 보았노라." 한 것을 들은 일이 있어서, 그가 평소 얼마나 이 '지략'과 '조화'를 부러 보고 싶어하는 위인인가를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이 언 (가) 제나 몸에 지닌 솔잎 한 줌과 네 귀 모지라진 주역 속에서 우러난 음양 오행의 지모 조화가 겨우 '쇠뿔 위에 개뿔' 눈 흠가루 약과, 친구의 책상을 들리고 다니는 것쯤인가 하고 생각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 나왔다.

저녁때가 되어 그는 전대를 다시 배에 두르고 돌아갔다. 종 종 오라고 한즉, ㉧'매양 신세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하며 절을 몇 번이나 하였다.

그 해 겨울, 그는 내가 성이 가시도록 자주 나를, 아니 내 삼촌을 찾아왔다. 그는 언제나 나를 볼 때마다 오랫동안 삼촌께 못 뵈어 죄송하다고 하였다.

그는 나에게 한시를 지어 달라면서 사오 차나 운자를 가지고 왔다. 어디 쓰느냐고 물으면 친구의 환갑 잔치에 ㉨'대노라고 한다. 친구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 참봉, 윤 승지, 무슨 참판, 어디 남작 하고 모조리 서울서도 우수한 대가와 부자들의 이름만 꼽지만, 거리에서 그가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나 가끔 친구라고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 그의 말과는 탄탄으로 황 진사 자신보다 별로 유여한 축들도 아니었다.

좋은 규수가 있으니 장가를 들지 않겠느냐고 그는 여러 차례 나를 졸랐다. '좋은 규수가 어딴느냐고 물으면, 단번에 친구의 딸이라고 하고, 어떤 친구냐고 하면 무슨 승지, 무슨 자작 하는 예의 대갓집 따위를 꼽았다. 색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하면 매양 자기의 누르퉁퉁하게 부은 얼굴을 가리키며 이렇게 아주 유복스럽게 생겼다고 한다. 내가 웃으며, 색시가 일제 선생 같아서야 좀 재미 적다고 하면,

"아, 일등 규수라는데 그라."

하고 화를 내었다.

"그렇지만 너무 육중해서야."

하면,

"아, 거기 식욕이 들었는 걸 그라. 아, 여복해 일등 규수라는데 그래도 못 믿어서 그라."

하고 기를 쓰곤 하였다.

- 김동리, 화랑의 후에 -

32. 구술 면접 시험에서 윗글에 대해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 대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일제 식민 통치의 만행을 사실적으로 폭로했다고 생각합니다.
- ② 전통에 집착하는 인물의 일그러진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 ③ 인물과 인물의 갈등을 통해서 인간의 이타적 속성을 상징적으로 그려 냈다고 생각합니다.
- ④ 유교 경전의 해석과 수용을 통해서 전통의 현대적 의미를 부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 ⑤ 사투리를 활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전통적 가치를 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33. 대상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심리적 태도가 (가)와 가장 가까운 것은? [2.2점]

① 그의 얼굴은 그 바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바쁘다. 자랑스러워 할 틈도 없이 바쁘다. 그것은 서울에서의 나였다. 그만큼 여기는 생활한다는 것에 서투를 수 있다고나 할까? 바쁘다는 것도 서투르게 바쁘다. 그리고 그때 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서투르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일든지 설령 도둑질이라고 할지라도 서투르다는 것은 보기에 딱하고 보는 사람을 신경질 나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 김승옥, 무진기행 -

②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것처럼 잠자코 있는 것이 오히려 남의 눈을 끌어 크로마를 성나게 하거나 앓을까 하고 오금을 못 펴고 있었다. 두 친구들은 처음부터 나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크로마에게 붙어 있었다. 나는 이 세 아이들과는 다른 세계의 인간이었다.

- 헤세,데미안 -

③ 그는 지난 넉 달 동안이나 어떤 보람을 느껴 가면서 운영해 오던 야학을 어제 당에서 나온 공작대원에게 접수를 당한 것이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다. 훈이 야학 시간이 되어 가 보니 벌써 낮모를 청년이 교단을 점령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 이렇게 술이 좀 지나친 것도 그 허전감에서 온 것인지도 몰랐다.

- 황순원, 카인의 후예 -

④ 그는 문득 깨달았다. 최근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고 있는 혐오, 특히 오늘 코르차긴 공작이나 소피아 바실리에프나, 미시나, 코르네이에 대해서 느낀 혐오감은, 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의 비열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 감정 속에는 뭔가 병적이며서도 동시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있었다.

- 톨스토이, 부활 -

⑤ 전우란 소년은 내가 직접 담임 했던 제자다. 당시 나는 K라는 소위 일류 중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 첫 시간의 일이었다. 지각생이 많았다. 지각생이 많으면 교사는 짜증이 나게 마련이다. 그럴 때 유독 닳이는 놈은 으레 그런 일이 잦은 놈들이다.

-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

34. '황 진사'와 <보기>의 '초시'가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초시는 돈의 진요성을 날로 날로 더욱 심각하게 느꼈다.

"돈만 가지면야 좀 좋은 세상인가!"

심심해서 운동 삼아 좀 나다녀 보면 거리마다 깃느니 고층 건축들이요, 동네마다 느느니 그림 같은 문화 주택들이다. 조금만 정신을 놓아도 물에서 갓 튀어나온 메기처럼 미끈미끈한 자동차가 등덜미에서 소리를 뿜 지른다. 돌아다보면 운전수는 눈을 부릅떴고 그 뒤에는 금시곶줄이 번쩍거리는, 살진 중년 신사가 빙그레 웃고 앉았는 것이었다.

"예순이 널 모레…… 쉐-장할 것."

초시는 늙어 가는 것이 원통하였다. 어떻게 해서나 더 늙기 전에 적게 돈 만 원이라도 붙들어 가지고 내 손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과 교섭해 보고 싶었다. 지금 이 꼴로써야 문화 주택이 암만 서기로 내게 무슨 상관이며 자동차, 비행기가 개미떼나 파리떼처럼 퍼지기로 나와 무슨 인연이 있는 것이냐, 세상과 자기와는 자기 손에서 돈이 떨어진, 그 죽시로 인연이 끊어진 것이라 생각되었다.

- 이태준, 복덕방 -

- ① 황 진사: 너나 나나 살 만큼 살았는데, 너무 돈 돈 하지 말라구. 사람이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 ② 초시: 날씨는 춥지, 담배는 피워야지. 누구한테 손을 벌리겠어, 다들 제 코가 석 잔데. 더 늙기 전에 담뱃값이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어?
- ③ 황 진사: 초시면 초시답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몸을 함부로 내두르면 어쩌나? 유유자적 복덕방에서 장기나 두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공자님 말씀이라도 들려주면 좀 좋아?
- ④ 초시: 문화 주택이 즐비한 시대에 공맹을 읊은들 뭣 하나? 난 차라리 금광이나 찾아다니며 기회를 엿볼 걸세.
- ⑤ 황 진사: 육효가 잘만 뿜히면야 나도 족보를 팔아서라도 된가를 해 볼 걸세. 지략과 조화는 다 때가 있는 법이지.

35. 윗글을 회곡으로 바꾼다면, ㉠~㉣ 중 독백으로 처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6. 윗글과 <보기>의 ㉠~㉣를 각각 대응시켰을 때, 그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보 기>

먼산에는 구름이 잔뜩 몰려 있어 머지않아 폭풍우가 ㉠ 치고 비가 쏟아질 듯한 기세였다. 남자가 여자를 본 것은 다섯 시가 ㉡ 질질했을 무렵이었다. 수백 년 ㉢ 묵은 노승이 힘겹게 서 있는 방풍림 근처에서 그녀는 홀로 서성거리고 있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나가기를 반복하는 동안에 형체가 ㉣ 이저리진 방파제는 예전의 모습은 아니었으나 거센 파도를 피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장소였다. 방파제 안쪽에 배를 ㉤ 대노라고 했건만 여의찮아 씨름을 하던 중에 언뜻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1 ~ 3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날 저녁때 황 진사가 온 것을 보고, 숙부님이,  
 “일제, 여기 젊고 돈 있는 색시가 있는데 장가 안 들라우?”  
 하고 물어보았다.  
 “아, 들면야 좋지만 선생도 아시다시피 천량\*이 있어야지.”  
 하는 그의 얼굴에는 완전히 희색이 넘쳤다.  
 그의 얼굴에 희색이 넘침을 보신 숙모님은 돈이 없어도 장가를 들 수 있다는 것과, 장가만 들게 되면 깨끗한 의복에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을 일러 주신즉,  
 “아, 그럼야 여복 좋았수, 규수 나인 몇 살이구…… 집안도 이름 있구…….”  
 ㉠ 그는 연방 입이 벌어져 침을 흘리며 두 눈에 난데없는 광채를 띠고 숙모님께로 대어드는 판이었다.  
 “과부래야 이름 아깝지 뭐, 이제 나이 삼십밖에 안 된 걸…….”  
 숙모님도 신명이 나는 모양으로 이렇게 자랑삼아 말한즉, 황 진사는 갑자기 낫빛이 핵 변해지며,  
 “아 규, 규수가, 시방 말씀한 그 규수가, 과, 과부란 말씀유?”  
 이렇게 물었다.  
 “왜 그류.”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황 진사의 닫힌 입 가장자리에 미미한 경련이 일어나며, 힘없이 두 무르팍 위에 놓인 그의 두 손은 불볼볼 떨리고 있었다. ㉡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푹푹탁탁 하고 들리었다. 그는 조용히 고갯짓부터 좌우로 돌렸다.  
 “당찮은 말씀유…… 흥, 과, 과부라니 당하지 않은 말씀을…….”  
 그는 곧 호령이라도 내릴 듯이 누렇게 부은 두 볼이 꿈쩍 꿈쩍하며 노기 띤 눈을 부라리곤 하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 “황후암(黃厚庵) 육대 직손이유.”  
 하고 다시,  
 “황후암 육대 직손이 그래 남의 가문에 출가했던 여자한테 장가들다니 당하기나 한 소리요…… 선생도 너무나 과도한 말씀이유.”

[A]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수감된 숙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황 진사를 우연히 만난다.

“이리 잠깐 오, 날 좀 보.”  
 하고, 그는 나를 한쪽 구석에 불러 놓고 지극히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노라고 한다. 나는 사정이 전과 다른 형편에 있던 터이라 혹시나 이런 데서 무슨 숙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알게 되나 하여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긴장한 낯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인데, 그는,  
 “아, 내 조상께서도 모르고 지낸 윗대 조상을 근일에 와서 상고했구라.”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였다. ㉣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어리둥절해 있노라니,  
 “왜 그류, 어디 편찮우?”  
 한다. 괜찮으니 얼른 마저 이야기하라고 하니,  
 “아, 이런 수가…… 온, 내 조상이 대체 신라 적 화랑이구라!”  
 하고 혼자 감개해서 못 견디는 모양이었다. 그건 또 어떻게 알

아냈냐고 한즉, 근일에 여러 가지 서적을 상고하던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라 하였다.  
 황 진사를 광화문통에서 만난 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숙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총독부 앞에서 전차를 내려 필운동으로 들어가노라니 모르핀 중독 환자 치료소 옆에서 자칫하면 모르고 지나칠 뻔하다가 그를 보게 되었다.  
 머리가 더부룩한 거지 아이 몇 놈과 아편 중독자 몇과 그 밖에 중풍쟁이, 앓은뱅이, 수족 병신 등이 몇 둘러싼 가운데 한 두어 뺨 길이썸 되는 무슨 과자 상자 같은 것을 거꾸로 얹어 놓고 그 위에 삐쩍 마른 두꺼비 한 마리와 그 옆의 똥그란 양철통에 흠뻑 연고 약을 넣어 두고 약 쓰는 법을 설명하는 위인이 있다.  
 “두꺼비 기름, 두꺼비 기름, 예헴, 두꺼비 기름이올시다. 옷오른 테도 쓰고, 움 오른 테도 쓰고, 등창, 둔창, 화상, 동상, 충치, 풍치, 이 앓는 테도 쓰고, 어린이 귀젓 앓는 데, 머리카 자꾸 헐어 들어가 하계아다마\* 되라는 데, 남녀노소, 어른, 애, 계집, 사내 할 것 없이, 서울내기, 시골뜨기, 물을 것 없이, 그저 누구든지 현 데는 독물을 빼고, 살이 썩는 데는 거구생신을 하고, 자, 깊이깊이 감춰 두면 반드시 한 번씩은 찾게 되는 약! 첩첩이 싸서 깊이깊이 넣어 두면 언제든지 한 번은 보배가 되는 약! 자아, 두꺼비 기름이올시다. 두꺼비 코에서 짠 두꺼비 기름, 자아, 그러면 이 두꺼비가 얼마나 무서운 신호가 있는가를 여러분의 두 눈에 보여 드릴 터이니까 단단히 보시오.”  
 그는 약물예다 흠뻑 고약을 찍어 넣어서 저으며,  
 “자아, 단단히 보시오, 우리 몸에 있는 썩은 피가 두꺼비 코 끝만 들어가면 그만 이렇게 홍로일점설, 봄철의 눈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고, 약물 접시를 들어 여러 사람 앞에 한번 내두르고 나서 기침을 한번 새로 하더니,  
 “여러분, 여기 계시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선생이올시다. 그런데 선생께서는 두 달 전부터 충치를 앓으셔서 병석에 누워 계시다가 이 약으로 말미암아 어저께 별례를 내고 오늘부터 이렇게 이곳까지 나와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고, 켈자\*가 손으로 가리키는 바로 그 곁에는, 전날에 보던 그 검정색 안경을 쓴 우리 황 진사가 점잖게 먼 산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켈자는 다시 말을 이어,  
 ㉤ “선생께서는 또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깊으실 뿐 아니라 꿈의 쓸개, 오리의 혀, 지렁이 오줌, 쥐의 똥, 고양이 간 같은 걸로 훌륭한 약을 지어서 일만 가지 병마를 퇴치시킬 수도 있는, 말하자면 이인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어른이올시다!”  
 할 즈음에 순사가 왔다. 예위싸고 있던 거지, 아편쟁이, 수족 병신 들은 각기 제 구석을 찾아 헤어졌다.  
 이 꼴을 보신 숙모님은 나에게 눈짓을 하시며 앞서가셨다. 나도 숙모님 뒤를 쫓아 한참 오다 돌아다본즉, 아까 연설을 하던 작자는 빈 과자 상자에 마른 두꺼비와 고약 통을 담아 가슴에 안고, 황 진사는 점잖게 두 손을 두루마기 옆구리에 찌른 채 순사를 따라 건너편 파출소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 김동리, 「화랑의 후에」 -

\* 천량: 개인 살림살이의 재산.  
 \* 하계아다마: 대머리.  
 \* 켈자: '그를 낮잡아 이르는 말.'

31.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상 장면이 삽입되어 사건의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행동 묘사와 대화를 통해 인물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장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④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실제 공간의 실감 있는 묘사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32. <보기>는 수업 중 제시된 과제이다. 이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가문의 의식, 조상의 명예 등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시대착오적이며 허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인 '황 진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점을 중심으로 작품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말해 보자.

- ① 황 진사가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면서도 약장사의 조력자 노릇을 하는 것은, 그가 허위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황 진사가 과부 증매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 것은, 그가 조상의 명예에 합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군.
- ③ 황 진사가 안경을 쓰고 점잖게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그가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관조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황 진사가 자신의 조상이 신라 적 화랑이었음을 감개하며 자랑하는 것은, 그가 가문을 중시하는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황 진사가 순사에게 끌려가면서도 점잖게 두 손을 두루마기 옆구리에 찌른 채 걸어가는 모습에서, 그가 양반의 체통을 중시하는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겠군.

3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황 진사는 숙모가 말한 규수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방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숙부가 권해 준 규수를 부인으로 맞을 수 없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기대와 다른 황 진사의 말을 접한 '나'의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황 진사가 가진 능력을 진술하게 제시하고 있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매몰 사고가 발생한다. 마침 현장에 있던 홍 기자는 특종을 예감하며 보도에 나선다.

**9. 현장**

**홍 기자** 여기는 동진 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갱구 매몰로 11명의 광부의 목숨을 빼앗은 광산 사고는 울들어 두 번째 큰 사고로 지금 유일한 생존자인 김창호 씨가 무려 열하루째 지하 1천5백 미터 아래서 구출의 손길 이 닿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갇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가 난 동5 갱구입니다. 먼저 김창호 구조 위원회 회장이시며 동진 광업소 소장이신 권오창 선생님께 구조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갱구 입구 필름, 인터셉트\*된 구경꾼의 얼굴들. 손을 흔들며 웃어대는 필름들.

**소장** (마이크 앞에 선다) 에헴,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구조대는 지주공 2명, 조수 2명, 감독 1명, 신호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6시간씩 교대하여 불철주야 김창호 씨 구출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앞으로 구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 애초 예상과 달리 갱목 철근 등의 장애물이 많은 데다 갱내에 물이 쏟아져 작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앞으로 2, 3일 더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감사합니다.

비서관, 수행원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한다. 비서관, 소장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메라에 포즈를 취한다.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수행원, 경찰.

**홍 기자** (기자에게) 어떻게 보십니까? 각계각층에서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기자 1** 대단합니다. 전 국민의 성원이 이렇게 뜨겁고 클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 2** 현지 주민들이 기자 숙소로 옥수수와 감자들을 삶아 갖고 와서 김창호 씨를 꼭 구해 달라고 호소할 땐 눈물이 핑 돌더군요.

**홍 기자** 이런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뜻으로도 꼭 살아 나와야겠습니다. (감격해서)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젖어 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존엄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 말씀드렸습니다. (쪽지 보며) 이 방송은 여성의 미를 창조하는 몽셀 느그르 화장품 제공입니다.

**10. 사무소와 갱내**

전화벨 울리며 갱내를 비춘다. 지친 듯 쓰러져 있던 김창호, 간신히 몸을 움직여 전화를 받는다. 사무실엔 비서관, 수행원, 의사, 경찰서장이 전화 거는 것을 지켜본다.

**김창호** 네?

**소장** 나 소장이고, 지금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의 건강을 염려하여 비서관님을 보내셨습니다. 받아 보시오.

**비서관** (전화 바꾼다) 김창호 씨, 나 신난다 비서관입니다.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가 어서 구출되어 나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꼭 구출될 겁니다.

**김창호** ㉠(기운 없이) 감사합니다.

**비서관**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중략)

**14. 기자 회견 석상**

김창호, 주치의의 호위하에 단상에 앉는다. 기자들, 카메라맨, 카메라를 들이대자 김창호, 얼굴을 가린다.

**카메라맨** 김창호 씨, 얼굴 좀.

**주치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시력이 약화돼서 카메라 플래시에 견디질 못합니다.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김창호에게 씌운다)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 전 국민에게 김창호 씨를 알려야 합니다.

플래시 터진다. ㉢ 김창호, 움찔거리지만 참고 견딘다.

**홍 기자** 김창호 씨, 우리 기자단을 대표해서 김창호 씨의 생환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김창호 씨가 구출되기까지 쭉 지켜보았던 한일 마스크센터의 홍성기 기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살아 나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창호** ㉣(당황) 뭐가 뭘지 모르겠습니다. 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주치의, 귀에 대고 뭐라고 한다.

**김창호** ㉤ 저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자 1** 16일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 견디셨는데 어디서 그런 인내력이 나셨는지요?

**김창호** 예?

주치의, 쉽게 설명해 준다.

- 윤대성, 「출세기」 -

\* 인터셉트: 화면에 다음 화면을 끼워 넣음.

**3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고 당사자 대신 다른 인물들을 통해 사고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②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어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③ 영상을 통해 구경꾼들의 태도를 드러내어 사건의 심각성과 대비하고 있다.

④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시에 보여 주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상황에 맞지 않는 대사와 작위적인 이름으로 극적 긴장감을 이완시키고 있다.

39.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흥 기자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전달하고 있군.
- ② 소장은 취재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비서관은 현장에 등장하면서 언론을 의식하고 있군.
- ④ 기자들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군.
- ⑤ 주치의는 기자 회견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군.

40.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 글의 제목 『출세기』의 ‘출세’는, 간혀 있던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의미의 ㉠출세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된다는 의미의 ㉢출세이기도 하다.

- ① ㉠에는 ㉡뿐만 아니라 ㉢를 확신하는 주인공의 기대가 표현되어 있다.
- ② ㉡에는 주인공이 ㉠를 계기로 ㉢로 나아가는 상황에 대한 주변 인물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 ③ ㉢에는 ㉠에 대한 주인공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를 추구하는 주인공의 의지가 담겨 있다.
- ⑤ ㉢에는 ㉠를 계기로 ㉢에 이르고자 하는 주인공의 집념이 드러나 있다.

◆ 13년 7월 고3 B형 37~39번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종로를 지나다가 박문서관에 들러 잡지를 보고 있었다. 사 볼 밑천이 없으니책방에 가서 이렇게 공짜로 보기가 일쑤다. 조그만 책방에서 이런 짓을 하다가는 담박 쫓겨날 것이지만 큰 테는 사람이 우굴우굴하여 눈에 덜 뜨인다. 옆에 섰던 중학생 두 놈이 책을 뒤적거리면서 얘기를 한다.

“애 이 책이 어때?”

힐끗 결눈으로 보니 그 ‘化學의 徹底的研究(화학의 철저적 연구)’라는 책이다. 무어니무어니 해도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의 책이다. 하물며 내가 경양하여 마지않는 김가성 교수의 저서임에랴! 먹는 것 없이 나는 그 책이 좋다는 평이 내리고 이어서 두 말없이 사 가기를 원했다. 원했을 뿐더러 조바심까지 났다.

그런데 이놈의 대답이 꽤씹하기 짝이 없다.

“틀렸어, 왜말루 쓴 그..... 무슨 책이더라?..... 하여튼 무슨 화학 연구야. 꼭 그대론 거 머. 그래두 볼라거든 내 걸 갖다 봐.”

적어도 신문에까지 난 사계의 권위자가 쓴 책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니 이따위 모욕적 언사를 감히 하는 학생놈이 아니꼽기 그지없다. 그렇다고 나 같은 것이 무어라고 하자니 알아야 편잔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노라니까 행하고 내던지고 나가 버렸다. 자세히 보니 그 책뿐 아니라 옆에는 ‘金可成

著(김가성 저)가 세 가지나 더 있다. 꼬마 점원이 무어라고 중얼거리면서 책을 바로잡는 것을 보고 나도 행하고 나와 버렸다.

바로 추석날이다. 신문에 불일이 있어 들렀더니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잡담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은 기자요 두 사람은 손님이었다.

“가성이란 놈, 죽일 놈이야. 지난 초얼흘날 결혼했는데 청첩장 하나 없잖아. 그 며칠 전에 길에서 만났는데두 아무 말 없구. 관호한테 물으니 동창이라고 부른 건 두민이밖에 없대.”

“두민인 의심해서 돈냥 벌었겠다. 그럴 범허지 뭐야.”

“고거 큰일났어. 뻔질뻔질 돌아만 땡기구…… 게다가 제간엔 큰 권위자루 자처한다지.”

“홍, 왜놈덕을 단단히 봤지, 무호동중에 이작호(無虎洞中狸作虎)\*야.”

“일종의 새치기지.”

“새치기의 권위자가 하하…….”

“㉠새치길수록 꺾테기는 점잖구 한다는 소리는 크거든.”

“그 무슨 책인가 한 권 내구 꽤 벌었대지, 더 점잖아지겠군.”

모두들 가성의 진짜 동창인 모양이다.

—가성이가 그럴 리 있다? 그 일람척기하던 가성이, 다른 가성이겠지.

나는 변명하고 싶었다. 적어도 내가 아는 김가성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소이연을 푹푹히 가르쳐 주고 싶었으나 아는 것이 없는데다가 말주변까지 없으니 가슴만 답답하였다.

새파란 청춘에 벌써 학계의 권위자가 되었으니 그의 앞날은 어찌면 아인슈타인쯤 될는지도 모른다. 못되어도 일본의 유가와(湯川) 따위는 어렵도 없다고 은근히 기대하고 혼자 좋아서 어깨를 으쓱해 왔는데 그럴 리가 있다? 다른 가성이겠지.

하루는 옆집 문간방에서 자취하는 S대학생이 도끼 빌리러 왔기에,

“김가성 교수님 잘 계세요?”

하고 물었더니,

“네?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나는 그가 어려서 일람척기하는 신동이었던 것과 제국대학을 나오고 미국 가서 깊이 연구한 학자요 권위자니 크게 이루는 바가 있으리라고 자랑삼아 선전삼아 퍼부었다.

“글쎄요…… 뜯소문에는 다섯 가지 위원을 겸하고 있다니까 그런지는 몰라두…… 참 요새는 또 어느 무역회사 중역이 됐나 부던데요.”

학생의 달갑지 않은 대답과는 달리 나는 여기서 실로 삼탄(三嘆)하였다. 교수 자리는 자리대로 차지하고 돈은 돈대로 벌고 행세는 행세대로 하고—월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푸르다더니 과연 그런 말이 아니다.

“잘 살구 출세하구 더 바랄 게 무에 있어요, 과연 모두들 기대하던 대루 됐군.”

내가 이렇게 응수하니,

“그렇지만 사람이 어디…….”

이렇게 말미를 폐는가 했더니 멍하니 건너편 산꼭대기를 바라보다가 일어서 도끼를 쥐고 나가 버렸다. 나 같은 신문배달 무식쟁이를 상대로 얘기해 보았자 얘기가 안되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별놈이 별소리를 다해도 내가 경애하는 김가성 교수는 일인

십역이라도 능히 감당할 천재요, 그 지식으로 말하면 고급과 동서를 전부 몰라도 반쯤은 통했으리라 믿는 까닭에 그에게 대한 경애나 신뢰가 털끝만치라도 동요할 리 없다. 그는 단연 거리에 굴러다니는 어중이떠중이와는 유가 다르다.

그 후 나는 그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아마 지금쯤은 직함도 더 늘고 저서도 부쩍 많아져서 더욱더 접근하기 어렵게 되었으리라.

김가성론을 마친다. 이로써 내가 김가성 교수와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으니 나도 조금 잘나질까 남몰래 기대하고 있다. 말꼬리에 붙어서 천 리를 가려는 파리의 심사라고 험하지 말기를 바란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우리 조상의 그 알뜰한 전통을 낸들 잊을까보나.

— 김성한, 「김가성론」 —

\* 무호동중에 이작호(無虎洞中狸作虎): 뛰어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득세함.

### 37.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학적 표현으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을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중심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성격 변화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교차 서술하여 사건 간의 인과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 ⑤ 삽화적 사건을 나열하며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38.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어수룩함에 대비되어 ‘김가성’의 속물성이 부각된다.
- ② ‘김가성’은 ‘나’를 통해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세상에 알린다.
- ③ ‘김가성’에 대한 ‘나’와 타인의 평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 ④ ‘중학생’, ‘세 사람’, ‘S대학생’을 통해 ‘김가성’의 위선적 실체가 드러난다.
- 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김가성’에 대한 ‘나’의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 39. ㉠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분야만 파고드는 열정이 필요하다.
- ② 사람은 결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 ③ 전문 분야에서는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하다.
- ④ 내적 성숙과 함께 외적 품위도 갖추어야 한다.
- ⑤ 학식이 높은 사람은 저절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다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잉어들을 풀어 놓았다.

비단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 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흘기눈을 뚫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 고기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 몇 사람 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 밖의 몸값 때문이었다.

“대관절 월매짜리 고기간디그러?” / 내가 물어보았다.  
 “마리당 팔십만 원씩 주구 가져왔다.”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나의 월급으로 계산을 해 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 볼까 말까 한 값이었다.  
 “웬 늙은 잉어가 사람버덤 비싸다나?”  
 내가 기가 막혀 두런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러면그러. 벨어넨벤또(베토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차에코플구실어(차이콥스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또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좌우간 곡을 틀어 주는 대루 못 추는 춤이 읍는 순진 탄따라 고기닝께. 물고기두 꼬랑지 흔들어서 먹구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 에 그 집에서 춤 봤구면.”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거였다.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엿게 뒤집어진 채로 떠 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화를 켜 발로 뛰어 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뉘 나간 듯이 서 있던 총수가 하고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물은 말이었다.

“글쎄유, 아마 밤새에 고빨이 들었던 개비네유.”

유자는 부러 탄청을 하였다.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두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드는 것이었다. / 그는 비위가 상해서,

“그야 팔자가 사나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 살라니께 여러 가지루다 객고가 썩여서 조시두 안 좋았을 테구…… 그런디 다가 부릇쓰구 지루박이구 가락을 트는 대루 디립다 취했으니께 과로해서 몸살끼두 다소 있었을 테구……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덜일수록이 다다 탈이 많은 법이니께…….”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부러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잖은 소리…… 시끄러 이 사람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중간 부분의 줄거리] 불상을 닦는 일로 총수의 미움을 사게 된 유자는 총수의 개인 운전수 자리에서 쫓겨나 회사에 속한 차량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 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쭉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렁이 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이 셋방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별이가 시달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홀어미와 단칸 셋방에 살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 버려 어린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 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를 두 포대 팔아 주고, 그리고 연탄을 백 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여투\* 수 있는 한계였다.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 가게에서 연탄 백 장을 지게로 저 올려 비에 안 젖게 쌓아 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올른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 드는 것은 만날 일간하여 엮어 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까지도 드러났던\* 것이다.

도로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서 굴비 두름을 개 안 당게 고양이 안 당게 아무지게 매달아 주면서,

“빅(부엌)에 제우(겨우) 지랑(간장)백이 읍으니 뱀이구 수제비구 건건이가 있어야 넘어가지유. 탄불에 귀 자시든 뱀술에 썩 자시든 하면, 생긴 건 오죽잖어두 뇌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볼 만할쥬.”

쌀이나 연탄을 들여 줄 때는 회사에서 으레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거니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 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 이문구, 「유자소전(兪子小傳)」 -

\* 배참: 꾸지람을 듣고 그 화풀이를 다른 데다 함.  
 \* 여투다: 돈이나 물건을 아껴 쓰고 나머지를 모아 두다.  
 \* 드티다: 밀리거나 비껴나거나 하여 약간 틈이 생기다.

3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알고 있었다.
- ② '노파'는 반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유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 ③ '스페어 운전자'들은 그들의 자질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별이가 좋았다.
- ④ '총수'는 비단잉어들이 죽은 이유에 대한 '유자'의 대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 ⑤ '유자'는 그룹 내 '동료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적당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3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② [B]는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교차하여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주인공의 부정적 측면을, [B]는 주인공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여 인물의 이중적인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자소전」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전(傳)의 형식을 빌려 와 전통적 삶의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려고 했다. 또한 지역 방언과 익살스러운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체를 사용했고, 인간적 도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평면적인 인물을 통해 산업화 속에 나타나는 부정적 가치관과 인간 소외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있다. 이 작품은 양심적이고 인정미 넘치는 주인공의 삶을 조명하여 산업화 속에 사라지고 있는 전통적 삶의 양식을 보여 주고자 했던 작가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 ① 유자가 사용하는 방언과 익살스러운 표현을 통해 토속적인 느낌과 인물에 대한 정감을 주고 있군.
- ② 유자가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인정미 넘치는 모습을 통해 인간적 도리를 실천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 ③ 유자에 얽힌 일화들을 소개하여 그가 한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의 형식을 빌려 온 것이라 할 수 있군.
- ④ 총수의 사치와 허영심에 대한 유자의 불만스러운 태도를 통해 산업화 시대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군.
- ⑤ 총수의 운전수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로 처지가 바뀌고 나서야 인간성을 회복하는 유자는 평면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군.